■ 특별기고 ■

이경진씨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정호양
서양화가 / 월간아트프라이스 · 월간옥선편집장
(지역미술담당)

포천미협 이경진 지부장의 글을 읽고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본성의 끝을 보는 것 같아 마음 한편 허탈함을 느끼며 그의 왜곡되고 허구적인 일부 발언에 대한 반론을 기고하고 이러한 열린 토론마당을 제공한 포천신문의 배려에 감사를 드린다.

이경진씨는 내가 포천신문 386호에 포천의 문화발전에 대한 충언적 기고를 했음에도 포천 15만 시민과 100명의 포천미협 회원을 욕보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며 나의 기고문을 잘 읽으면 내용에 수긍을 할 것이다. 나는 이번 일 이외에도 2~3년전부터 포천시의 문화정책에 관심을 갖고 월간지에 몇차례의 홍보성 보도를 했었다. 나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미술 월간지의 지역미술을 담당하는 편집장의 일과 경기북부작가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4년째 포천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기에 포천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게 깊다고 본다. 사실 주민등록만 이곡리에 옮겨져 있고 거주도 안하는 어쩌면 위장전입의 과오도 물을 수 있는 이경진씨보다는 내가 포천에 들어와 머무는 시간이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의 지난번 기고문에서는 포천시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칭송과 마인드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어느 한 부분도 포천시의 악평을 하지 않았는데 왜곡된 반론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자신의 뒤를 되돌아보고 자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포천미협의 경우에도 나는 회원을 인신 공격한 적이 없다. 내가 알기에 포천미협 및 포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미술인들은 타 지역 어느 곳 보다도 훌륭한 작가들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경기북부작가회원들도 상당수 포천미협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러한 포천미협을 존중하고 있다. 내가 일전에 기고한 글을 잘 검토하면 지역미협의 원활한 활동성과 비젼에 대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터 진정한 공공단체의 리더는 사적인 감성에 얽매이지 말고 크고 열린 시야를 가져야 하며 진정으로 회원 전체의 복지와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왜곡된 반론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재 반론을 하며 이경진씨의 기고중에 무고와 명예훼손에 관련한 사항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고지하며 근거에 의한 사실내용 증명을 제출 바란다.

이경진씨는 내가 평화지대전, 깃발전. 어린이 미술전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나는 포천아시아비엔날레의 조직위원인 동시에 기획위원으로서 책무에 충실하고자 단 한차례도 공식 · 비공식회의에 불참 한 적이 없었다. 본전시의 경우 대행사가 선정되어 업무가 추진되었고 부대전시의 경우 시급한 진행일정의 극복을 위해 DMZ-평화지대전과 버스터미널의 외곽을 작가가 직접 그린 깃발 200여장으로 포장하는 깃발설치전과 포천관내 어린이 100명과 아시아 10개국 어린이 100명의 작품을 전시하는 아시아 어린이미술제의 제안서와 기획안을 기획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제출하였다. 그 외에 포천미협에서 주관하는 지역작가전도 내 제안서안에 포함하여 올려 놓았는데 이것을 개인적 사심으로 몰고 가는 저의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겠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발목잡기나 지역 이기심의 발로가 아닌가 하고 되묻고 싶다. 또한 이경진씨는 본인 자신이 조직위원과 기획위원을 도중 사퇴하겠다고 시에 통고했다고 들었다. 이러한 일들의 수순은 외곽적 시야에서 보면 비엔날레의 성공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 잡는 형태로 비추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내가 부대전시에 적극 관여하는 것은 책임 있고 소신 있는 기획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인데 제안서 하나 제출하지 않고 기획위원들의 합의는 커녕 논의도 없이 전시가 추진되는 것은 내가 우려하던 일들이 불거져 나오는 반증 아닌가 하고 묻고싶다. 특별전에는 총 예산이 2.500만원의 많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내가 제안한 위 3종류의 예산 배정으로는 1300만원의 극히 봉사적인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미협주관의 지역작가전에 6-7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경기북부작가회나 개인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깃발전의 경우에도 작가가 직접 제작하여 1개월간의 외부전시로 훼손되어 회수 불가능의 여건을 알면서도 작품을 출품해주는 것은 경기북부작가회의 단합 정신과 포천아시아비엔날레의 성공을 비는 동참의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일들을 통고 한통 없이 이경진씨가 기획하여 행사를 맡는다는 것은 나의 우려들이 재삼 재사 꼬리를 이을 확률이 있음을 암시한다. 도중에 사퇴의사를 내 비친 사람이 전시 총감독 및 기획위원에게 일언반구 한마디의 제안이나 합의도 없이 일을 맡아 진행하고 결국은 그가 운영하는 진산아트 웹하드에 자료를 받아 도록 등을 만들려 하지 않는가?

일부에서는 미협 지부장이 행사를 맡아 시행함에 타당성도 있지 않느냐 할수있지만 기획은 하되 도록제작이나 시공등에서는 투명하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말한 기획사를 이경진씨는 포천아시아비엔날레의 대행기획사와 같은 느낌을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수명의 전문큐레이터와 공인된 대외적 프로젝트를 기획한바 있는 시티아츠사를 이경진씨가 도록제작이나 인테리어 시공등을 위주로 하는 기획사와 같다고 느낀적은 단한번도 없으며 그 이야기에 사뭇 웃음이 나온다.이경진씨가 포천시청 회의실 이나 화장실 공사외에 포천 전시의 도록제작등을 수주한 사례들이 있기에 이러한 일들은 올봄 지부장 취임전의 일들이니 문제 삼을수는 없으나 지부장 임기중의 행동반경에서는 과오로 남을수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미협에 누를 끼칠수 있음을 충언한 것에 유념하기 바란다. 미협 주최의 총체적 문제에서도 이경진씨가 나에게 사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답변해준 내용중 나는 무조건의 미협 주관 반대가 아니고 미협에서 행사를 거저 맡을 생각보다는 열린 사고로 전시기획안과 제안서등 구체적인 수행능력을 검증 받을수 있는 신뢰부터 구축하고 그 당위성과 타당성에 공감구도를 형성해야지 법적 하자있는 무조건의 요구는 안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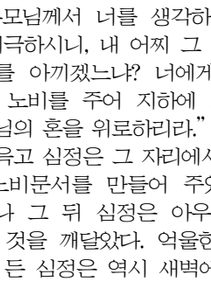
어린이 미술전의 경우에도 내가 주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포천 학원연합회나 유아기관등에 주관을 맡기고 외국어린이의 작품 지원과 상품은 내가 스폰업체를 찾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아시아비엔날레의 성공적 관건은 전시의 질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동참과 관객의 호응도를 우선으로 꼽아야 한다. 그러기에 어린이 참여는 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교에서도 단체관람등의 관심을 보일것이다. 내가 국제 미술전람회에 입상한 일본.중국등 외국아동들의 작품을 일부 보여 주었을때 모두들 이국적 향취와 높은 작품수준에 감탄을 하지 않았는가? 경기북부작가회의 참여 당위성도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천 인근도시의 많은 작가가 행사에 참여하고 성황을 이룰수 있는 동참의도로 봐야 하는데 기획안 조차 구경못한 전시등을 올려 놓는다는 것은 어찌 되었던간에 비민주적 파행 운영임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전시 기획분과위원들의 총사퇴 책임을 나에게 덮어 씌우는데 이경진씨의 허구와 왜곡성에 이젠 만연되어 놀랍지도 않다. 이 기회에 투명성을 위해 전시기획위원장을 포함한 전시기획위원 모두와의 정식 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실을 규명 할것을 제안한다.

나는 지난 주 전체 기획회의에서 처음으로 부대전의 방향에 설명을 들었고 이제 와서 그러한 사항을 비토하기 보다는 판을 깨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총체적인 포천비엔날레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했다. 여하튼 이번 부대전시의 인원 동원과 전시성공 여부는 10월 오픈후에 검증 될 것이다. 총감독인 미술평론가 오세권 대진대교수와 대행사인 시티아츠에서 기획한 메인전은 공개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참여작가 소개 및 중간진행 과정을 브리핑 했다. 부산비엔날레의 총감독을 역임한바있는 포천의 원로 조각가 이신 김광우 교수께서도 내용구성에 만족한다며 총감독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렇듯 책무를 맡긴 이상은 믿고 뒷받침 해주면 원활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힘을 모아 진정한 포천의 미술축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경진씨의 반론중에 개인적 무고에 관한 사항을 피력했는데 당치않은 허위 주장이며 내 명예를 걸고 남의 작품을 강압적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갈취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그가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강력히 규명을 표했으나 회신에 한건의 사례증명도 없이 허구의 변만 늘어 놓았음이 입증되었다. 부디 바라건데 일반 단체의 장도 아니고 예술단체의 장으로서 비록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는 아닐지언정 예인의 본성을 본받고 덕목을 지녀 미협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거듭나길 바라겠다.

韓國의 선비정신 · 77

쥐구멍은 그대로 있는데 형은 어디로 갔는가?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심의는 훈구파로, 기묘사화를 주도한 심정의 아우다. 일찍이 문과에 뽑혀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자처하였다. 그러나 그는 형 심정과 달리 자신의 재주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훗날 심정이 화를 당할 때 무사할 수 있었다.

그는 형이 장차 화를 면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여러 번 충고하였다. 그러나 형은 그의 말이 어리석다 여기고 전혀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심의는 형의 집에 놀러갔다가 벽에 뚫린 쥐구멍을 보고는 그것을 가리키며 형에게 말했다.

"저 쥐구멍은 형이 나중에 나가고 싶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시험삼아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합니까?"

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뒤 심정이 죄를 입어 죽음에 이를 위기에 처하자 그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쥐구멍은 저기 그대로 있는데 형은 어디로 갔는가?"

한번은 심정이 남곤과 더불어 작은 사랑채에서 일을 논의하는데 심의가 밖에서 들어오다가 창을 열어 젖히며 말하였다.

"두 소인이 앉아 있군."

남곤이 크게 노하여 얼굴빛이 변했으나 심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남곤을 달랬다.

"내 아우가 본래 어리석으니 원컨대 대감은 용서하시오."

형 심정은 기묘사화를 일으킨 후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그는 권세를 부리며 많은 땅을 긁어모았다. 심의는 형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늘 불쾌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심의는 잠에서 깨어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심정이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새벽부터 왜 눈물을 쏟는 게냐?"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꿈에 나타나 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님께서 너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작은 아들이라 살아있을 때 늘 걱정이 많았다. 그리하여 아무 데 있는 밭과 노비 누구누구를 네게 물려주려 했던 것인데, 그대로 하지 못하고 죽어 안타깝구나"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심정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울쩍하였다.

"부모님께서 너를 생각하시는 게 지극하시니, 내 어찌 그 땅과 노비를 아끼겠느냐? 너에게 그 땅과 노비를 주어 지하에 계신 부모님의 혼을 위로하리라."

이윽고 심정은 그 자리에서 땅과 노비문서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 뒤 심정은 아우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다. 억울한 생각이 든 심정은 역시 새벽에 일어나 거짓으로 울면서 동생에게 말했다.

꿈에 부모님을 뵈었더니 "아무데 있는 밭과 노비 누구누구는 큰 아들에게 주려 했던 것인데 말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시니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심의가 그 소리를 듣고 말했다.

"그건 개꿈이오."

심의는 서경덕, 성세창 등과 친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그가 성세창의 집에 갔다가 뒤뜰에 내놓고 말리던 비단 세 필을 몰래 훔쳤다. 그러자 비단을 지키고 있던 계집종이 안방을 향해 소리쳤다.

"심 좌랑이 비단을 훔쳐갑니다!"

성세창의 부인이 급히 다른 비단 세 필을 가져오면서 말하였다.

"말리고 있는 비단은 겉옷을 만들려는 것이니 이 비단을 대신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심의는 부인이 가져온 비단까지 챙기며 말했다.

"이미 겉감을 얻고 속감까지 얻었으니 부인께서 내 마음을 잘 아시는구려."

그러고는 그 비단을 모두 잘라 행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심의(沈義)

1475년(성종 6) ~ ?

본관은 풍산(豊山)이며 자는 의지(義之). 호는 대관재(大觀齋)이다. 1507년(중종 2)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형과 달리 모사를 모르고 직언을 잘하였다. 이 때문에 1509년 공신들에게 미움을 사서 여주부 교수(敎授)로 좌천되었다.

이때 정치의 도리를 밝힌 『일의잠(一宜箴)』을 왕에게 올려 신임을 받고 사헌부 감찰에 발탁되었으며, 이어 공조좌랑이 되었으나 관물(官物)을 절취하였다 하여 파직되었다.

행동과 말이 직선적이어서 사람들의 호감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서경덕(徐敬德), 성세창(成世昌) 등은 그의 뜻을 이해하고 친하게 지냈다.

역사의 얼 새긴 장포 전각발표전

장포 박재교 선생 작품전시회 10월6일~10일까지

역사의 얼 새긴 장포 전각발표전시회가 오는 10월6일부터 10일까지 포천여성회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개전행사가 없고 기간중 매일 오후3시 서예 퍼포먼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간중 관람객 체험마당으로 전각 인출해서 가져가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장포 박재교 선생은 "서예와 전각을 접하는 서각인으로서 일찌감치 1000과의 돌을 준비해놓고 실력이 미천하지만 열망을 안고 10년 작업계획을 세워 (총 1000과 10품, 인보집 5권, 한글서예민체로 1000미터) 틈틈이 한 덩이씩 새겨오던 차에 우선 200과(갑 · 을품)를 새겨 인영한 전각집 '도영'출간 및 200여 미터에 달하는 서예작품과 8덩이씩 묶어 탁본인문한 삽십여 점의 작품을 감히 세상에 발표하는 바"라고 밝히고 "오늘이 있기까지 음양으로 성원해준 친구들과 형제자매, 가족, 서학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서림제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장포 박재교 선생은 포천문화원 이사, 청림재활복지원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포천문화원, 포천시여성대학, 포천동 주민자치센터, 소흘읍솔모루문화관, 포천여자중학교, 경복대학 등에서 서각을 전수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est114@paran.com

장포 박재교 선생이 10월6일부터 10일까지 포천여성회관 2층 전시실에서 전각발표회전을 개최한다.(사진은 도록 표지사진)

뮤지컬 이야기 #27

세기의 송 앤 댄스(Song & Dance) 파트너 프레드 아스테어 (Fred Astaire)와 진저 로저스(Ginger Rogers)

배우나 댄서들에게 있어서 상대배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기와 춤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역이나 상대역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모노드라마나 일인무(一人舞)가 있기는 하지만 파트너로 공연하는 것만큼 재미를 줄 수 없고 특히 남녀 파트너쉽 만큼 로맨틱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건 남녀 파트너의 전설들이 있다. TV, 연극, 영화, 오페라, 무용 등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파트너쉽은 시대를 초월하여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한때 한국에서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인기 TV시리즈 〈X-파일〉. 극중에서 동료 FBI 요원으로 나온 데이빗 듀코브니(David William Duchovny)와 질리안 앤더슨(Gillian Leigh Anderson)은 공중파 방영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발레계에서는 러시아(구 소련)의 키로프 발레단(Kirov Ballet)에서 망명한 루돌프 누레예프(Rudolf Hametovich Nureyev)가 영국 로열발레단(Royal Ballet)에 출연하면서 이미 한물간 마곳 폰테인(Margot Fonteyn)과 파트너를 이뤄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한 사실은 유명하다. 이들의 명연은 현재 시중에 발매되고 있는 〈백조의 호수(Swan Lake)〉에서 감상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만담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는 장소팔과 고춘자가 올드 세대의 추억속에 자리 잡고 있고 장수드라마였던 〈전원일기〉의 최불암과 김혜자는 20년 넘게 극중 부부로 출연하여 많은 시청자들이 진짜 부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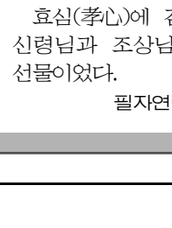
이들 커플들은 여러 작품들에서 또는 한 작품에서 오랜 시간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며 파트너쉽을 유지한 사람들인데 뮤지컬 영화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파트너쉽이 있다.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와 진저 로저스(Ginger Rogers)가 바로 그들이다. 이 두 사람은 1930년대 할리우드 뮤지컬의 전설로 남아있으며 현재까지도 이 두 사람의 로맨틱한 노래와 댄스 파트너쉽을 뛰어넘는 커플은 나오지 않고 있다.

프레드와 진저는 총 10편의 뮤지컬에 함께 출연했다. 대부분의 뮤지컬들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둬 RKO 영화사를 돈 방석에 앉혀놨는데 이들 뮤지컬 영화들은 작품성면에서도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탑 햇(Top Hat, 1935)〉, 〈스윙 타임(Swing Time, 1936)〉, 〈쉘 위 댄스(Shall We Dance, 1937)〉 등이 특히 유명한데 〈스윙 타임(Swing Time)〉과 함께 〈탑 햇(Top Hat)〉은 춤과 노래 그리고 드라마를 엮은 로맨틱 뮤지컬 코미디의 효시이며 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처음 본 순간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오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나중에는 오해가 풀리면서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얻는다는 플롯은 이들 두 사람의 독특한 스타일로 인해 더 이상 진부하지 않은 줄거리가 되었다.

완벽주의자 프레드, 스타일과 재능을 겸비한 진저. 탭 댄스를 춘 적이 없고 더우기 파트너와 함께 연기하며 춤을 춘 적이 없는 진저였지만 프레드의 리드하에 훌륭한 송 앤 댄스(Song & Dance) 뮤지컬 배우가 되었다. 전례가 없는 우아하고 탁월한 기량의 댄스 장면들은 특별히 선곡된 아름다운 노래에 실려 화려한 세트위에서 환상을 창조해냈다. 1911년에 불었던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Alexander's Ragtime Band)의 댄스 열풍처럼 프레드와 진저의 파트너쉽 이후 '어 파인 로맨스(A Fine Romance)' '칙 투 칙(Cheek to Cheek)' 등 로맨틱한 명곡들과 함께 또 다른 댄스 열풍이 불었다.

그렇지만 파트너쉽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서로의 성격적인 충돌도 있었겠지만 촬영하거나 연습할 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X-파일〉의 데이빗 듀코브니와 질리안 앤더슨은 자주 타블로이드 신문에 두 사람의 갈등에 관한 기사가 오르내렸다. 촬영을 하면서 문제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프레드 아스테어와 진저 로저스도 스크린에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로맨틱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프레드는 자신의 뮤지컬 영화의 안무를 직접 담당했다. 프레드의 프로의식은 진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연습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스케쥴이 이미 짜여진 다른 뮤지컬 영화의 연습과는 달리 스케쥴 외의 시간에도 리허설을 강행한 프레드의 안무 연습은 진저로 하여금 긴장과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전해진다. 만족할 줄 모르는 프레드의 완벽주의는 그 어떤 배우도 견뎌내기 힘든 연습과정이었다. 그렇지만 진저는 참아내었고 결국 10편의 영화를 함께 찍었다. 1986년, 프레드는 죽기 직전에 술회했다. "내가 함께 춤을 췄던 모든 여자 배우들이 결국은 (나의 안무를 소화) 해냈지만 그들은 항상 눈물을 흘렸다. 그렇지만 진저만은 결코 울지 않았다."

최근 스포츠 댄스와 아이스 댄싱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남녀가 파트너를 이룬 듀엣은 더 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프레드와 진저의 유명한 파트너쉽은 오늘날에도 장르를 초월하여 많은 예술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11)

동삼(童蔘)이야기

옛날 내 고향 포천에 효성이 지극한 효자 내외가 살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10년이란 긴 세월을 지내시고 있었다.

효자 내외는 어머니 대신 며느리가 아프게 해달라고 칠성당에 빌엇으나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효험이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시주를 받으러 온 절의 스님이 깜짝 놀랄 처방을 하며 약 방문을 써 주고 가는 게 아닌가?「동자 탕약(童子湯藥)」

마른 하늘에 날 벼락 같은 소리였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아이를 삶아 탕약을 어머니께 드시도록 하라는 약 방문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을 죽이고 어머님의 병을 낫게 해드려? 옛날 신라 때 손모효자는 어머니께 드리는 맛난 음식을 어린자식이 빼앗아 먹는다고 자식을 땅에 묻으려 했다지 않은가? 그뿐인가? 자기의 허벅지 살을 베어 어머니께 봉양하였다는 효자도 있었다지 않는가? 나는 불효자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효자 내외는 어린 아들을 삶아 어머니께 공양키로 하였다.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단 한 분의 어머니가 아니신가?'

그래서 글방(서당)에서 돌아오는 어린 자식을 맞아 옷을 벗기고는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 어린 자식을 넣고 솥뚜껑을 덮었다.

밤이 되여 어머니가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어린자식을 삶은 가마솥 뚜껑을 열고 대접에다 정성껏 삶은 물을 담아 쟁반에 받혀서 잡수시게 하였다.

"아휴, 이게 무슨 약인데 이리도 쌉싸름하고 맛이 좋단 말인가? 얘 이게 무슨 약이란 말이냐?"

영문도 모르는 어머니는 손자녀석을 삶은 물인 줄도 모르고 맛나다는 칭송만 늘어 놓으셨다.

효자 내외는 그저 어머니가 어서 병석에서 일어나시기만을 기원하여 어린자식을 삶아드렸지만 어린 자식이 눈에 아른거려 닭의 똥 같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방에 엎들여 울고 또 울었다. 이때였다. 어머니가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시는게 아닌가?

"아니, 어머니 왜 그러셔요? 아니 어머니...?"

"아니, 왜 일어나느냐고? 내 손자 놈 마중을 가야지... 저기 어두운 길을 뛰어 오고 있는게 안 보인단 말이야?"

어머니는 병석을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대문을 향해 버선발로 뛰어 가시는게 아닌가? 그 순간 대문을 박차고 어린 손자가 뛰어들어오며 할머니 품속에 덥석 안기는게 아닌가?

(목욕시켜 가마솥에 삶은 어림 자식은 효성 지극한 효자에게 보낸 천년 묵은 산신령님의 선물 동삼(童蔘)이었다.)

효심(孝心)에 감응(感應)한 산신령님과 조상님의 동삼(童蔘) 선물이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訓民正音(훈민정음)

양 기 성
용연서원장

正音創製半千年(정음창제반천년) 정음창제는 반천년이 되고 자음모음으로
子母形成字結連(자모형성자결연) 형성으로 글자를 맺었다.

經國善治深敬仰(경국선치심경앙) 경국선치는 깊이 공경하고 우려러보며
爲民仁政厚慈憐(위민인정후자련)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는 자련이 두터우며

無知樵牧能通意(무지초목능통의) 초부들은 아는 것은 없지만 뜻은 통하고
拙劣夫儒舒懷全(졸열부유서회전) 어리석은 서민들도 회포를 펼수 있네

濬智愚痴咸被澤(준치우치함피택) 어진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 혜택을 입으니
世宗偉績永延傳(세종위적영연전) 세종의 위적을 영구히 전하리라.